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자치도, 17개 대학과 RISE 체계 등 논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하도록 노력하자”

RISE 기본계획 4개 프로젝트
12개 과제 도출... 12월 확정
내년 글로벌30 공모 대응
한인비즈 학생 참관 등도

전북특별자치도는 17일 김관영 도지사과 도내 17개 대학 총장이 만나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와 내년 글로벌대학30 공모, 한인 비즈니스 대회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수립해 온 '라이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라이즈 기본계획은 전북자치도가 전복연구원 용역(2023년 4월~) 및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계획수립위원회(6개분과, 76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으며, 4개 프로젝트 12개 과제를 도출했다.

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시군, 대학, 산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3회 가질 계획이며 12월 중에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7일 김관영 도지사과 도내 17개 대학 총장이 만나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와 내년 글로벌대학30 공모, 한인 비즈니스 대회 등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김 지사와 도내 대학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글로벌 대학을 배출한 전북자치도는 내년도에도 지역대학이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연계 협력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관영 도지사는 라이즈와 관련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혁신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대학 선정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대학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대학들이 공동의 감정을 활용하

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예년에 비해 3~4개월 빠른 11월 중에 2025년 글로벌 대학 공모 선정 TF를 구성하고 예비 지정 단계부터 협력을 강화해 내년 3월까지 공모 신청서 작성 등에 대학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지역에서 또 하나의 글로벌 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와 관련한 언급도 이어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전북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인생의 새로운 영감을 얻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총장님들이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관영 도지사는 대학총장 간담회 이후 RIS 지역협업위원회도 갖는 등 대학과의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갔다. /이만호 기자

세계 금융의 최신 이슈 전북자치도에서 '한눈에'

'제5회 지니포럼', 23~24일 전북대 일원서
세계한인비즈와 연계 시너지 극대화 기대
지니어워즈 · 도민 참여형 금융행사 등 다채

전북특별자치도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 진수당 일원에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중심을 향한 움직임'을 주제로 제5회 지니포럼(GENIE For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니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글로벌 금융·경제 네트워크 행사로,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개막식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VC포럼, ESG금융포럼) △금융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세션이 준비돼 있으며, 금융 전문가들과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개막식은 23일 오전 11시 전북대학교 진수당 개인홀에서 열리며, 금융 및 경제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경제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지니어워즈가 수여된다.

주요 행사 중 하나인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는 두 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인

VC포럼에서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 전략을 논의하며, 두 번째 세션인 ESG금융포럼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자산 운용과 탄소중립 투자 트렌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밖에도 이번 지니포럼에서는 금융에 대해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금융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참여형 금융행사를 추가적으로 운영한다.

24일 오후에는 도민을 위한 금융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인기 금융 유튜브 샵프로TV의 이진우와 박공희가 강연자로 나서 쉽고 실용적인 금융 상식과 자산관리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현장 참석뿐만 아니라 지니포럼 공식 홈페이지(<http://www.genieforum.net>)를 통해 사전 등록 후 참여할 수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니포럼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세계적 금융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처리, 도시계획위원회서 재논의

전북자치도, 위원회 의결 정족수 문제 재검토

전북자치도가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놓고 이견이 발생한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차 상정해 다툼의 여지를 해소한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6일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총 30명의 위원 중 16명이 참석했으며, 14명이 찬성 의결해 '수정승용'으로 결

론을 내렸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해당 안건이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은 전주시 도시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시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번 변경안은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옛 대한방직),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종합경기장), 이종호수 유원

지 조성사업 등 3가지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 쟁점은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였다. 현행 도시계획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건설정책과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14명이 의결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오현숙 도의원은 의사정족수는 회의 전체 인원 부족은 무효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병립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자문 결과에 따르면 일부 변호사는 정족수가 충족됐다고 보는 반면, 다른 일부는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와 같은 논란을 해소하고자 해당 안건을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재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족수 문제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를 없애고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

도-과기부, 홀로그램 기술 교류회 공동개최

19일까지 개최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과 연계

전북특별자치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KMF) 2024'과 연계해 홀로그램 기술 교류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기술 교류회는 과기부의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사업(총 195억 원)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국내외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홀로그램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논의했다.

행사는 △홀로그램 실증사업 소개 △국내의 산업 실례 분석 등으로 구성됐다.

전북자치도와 과기부는 이번 교류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홀로그램 기술 상용화와 실증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이 작품은 국민 황지경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등입니다!”

안 심한 병엔, 1차병원
안심하고 다녀요, 10분 거리
나를 아니까 내가 아니까, 우리 동네 100점 의사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